

'혈세 먹는 하마'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손본다

광주시의회, 토론회 열고 미비점 보완해 조례 개정안 추진 운영지침 위반한 운수사업자 제재 조치 강화 근거 등 포함

광주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준공영제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광주시가 운송 사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 건전성을 파악해 시내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위해 16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관련 조례에 대한 미비점 등을 짚어냈다.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업체 경영 안정화, 운송 노동자의 환경 개선, 이용자 편의성 증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수입금 공동관리제를 기반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해 광주시, 버스 업체,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가 수입금 관리와 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여러 조례에 따라 10개 운수사업자에게 매년 재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준공영제 실시 이후 인건비 등 운송 원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승객 수는 감소해 운송 수입은 줄어들고 있어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보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19년 한 언론사 설문조사 결과 시민 40%는 준공영제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55%는 적자 운영인지 몰랐다. 적자 운영을 아는 시민의 절반이 적자 해소 방안으로 버스 회사 운영 실태 개선과 버스 준공영제 개편을 해결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8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특검을 실시했고, 총 16건의 행정상 조치와 총 4건(12억 72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감사결과 ▲운송 차량 정비비 표준 운송 원가 산정 등 업무 소홀 ▲차량 정비비 정산 부정적 ▲버스 경영 관리 시스템 미설치 등 운영·관리 태만

▲시내버스 교통카드 관련 사업비 검증 미흡 등이 지적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까지 이런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들이 고쳐지지 않아 특검을 다시 실시했다.

시 감사위는 최근 특검결과를 벌인 결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비용 정산검사 미실시 등 16개 사항을 지적하고 34건의 행정조치, 82억8300만원의 재정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준공영제 실시 이후 드러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조례안은 광주시와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 등을 위반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인천·대전·대구·부산·서울 등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에서는 집행부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개정안을 통해 광주시가 운송 사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시내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명시했다. 또 운송 사업자는 수입금을 누락하는 등 부정행위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으며 광주시의 조사·감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담았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시의회 제324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 대표발의의 준비 중인 채은지 의원(민주·비례)은 "일부라고는 하지만 운송 업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며 "현재 조례에는 제재 책무에 대한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집행부가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집행부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의미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과 스테파노 로 루소 토리노시장 등이 15일(현지시간) 토리노시청에서 '광주시-토리노시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뒤 세월호 참사 10주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이탈리아 토리노시와 우호 협약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도

광주시가 이탈리아 토리노시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함께 추모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 등 광주시 대표단은 15일(현지 시간) 토리노 시청을 찾아 두 도시 간 우호 협약을 체결했다. 두 도시는 경제, 문화예술, 관광, 학술, 스포츠 등 전반의 교류를 약속했다.

광주시립미술관과 토리노미술관재단도 이날 협

약을 맺고 소장품 상호 대여, 작가·연구자·기획자 레지던시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의 유럽 도시와 우호협약은 2012년 독일 라이프치히에 이어 두 번째, 민선 8기 국제 협약은 베트남 응에안성과 자매결연,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와 우호협약에 이어 세 번째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인 광주는 그 뿌리가 아시아자동차로, 이 회사의 첫 생산 모델이 바로 토리노에서 만들어진 '피아트 124'였다"고 인연을 소개했다. 강 시장과 스테파노 로

루소 토리노 시장은 서로의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며 안전 사회 구축도 다짐했다. 강 시장은 "로루소 시장과 토리노 시민이 세월호 10주기를 함께 추모해줘 감사하다"며 "광주와 토리노는 각자 위치에서 안전 생명 사회를 만드는 일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대표단은 오는 21일까지 토리노, 밀라노,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 주요 도시를 방문해 비엔날레 등을 매개로 우호 교류를 확대한다.

광주시는 청사 1층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청사 앞 광장에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세월호 추모기를 내걸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지역 창업기업 25곳 투자매칭 주선

세계적 벤처투자사 플러그엔플레이 해외진출 상담

광주시가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매칭 주선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1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창업기업과 투자사가 사전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제4회 파트너십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관광공사와 협력기관 전남대기술지주회사 등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열리는 '2024광주창업페스티벌'의 사전 교류행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지역 우수 창업기업 25개사와 투자사의향이 있는 5000억원 자금(펀드) 운용사 및 투자사 25개사와 관계기관 등이 참여했다.

특히 세계적 벤처투자사이자 창업기업 육성기관인 미국의 플러그엔플레이가 '글로벌 아웃바운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해외 투자유치와 진출을 상담에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플러그엔플레이는 구글이 초창기 입주해 보육을 받은 기관으로, 페이스북·드롭박스·렌딩클럽 등 35개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을 포함해 1600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투자한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 창업기업 육성기관이다.

이어 IBK기업은행도 오는 8월 광주에 개소하는 'IBK창공(創工)' 설명회를 진행했다. 'IBK창공(創工) 광주'는 오는 5월 24일까지 창업 7년 이내의 혁신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주최회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사전교류행사를 통해 잠재력이 높은 지역 창업기업들이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창업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 관광자원 연계 마이스 활성화 박차

전남도, 4곳 선정 기반 시설 개선

전남도가 자연·생태·문화 등 전남만의 독특하고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마이스 시설 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4개소를 선정해 회의실 정비, 기자재 확충 등 마이스 기반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남 마이스 기반 육성 지원사업은 전남 특화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활용 기반(인프라)을 구축해 지역 마이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회의 시설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부터 영상·방송 장비 설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까지 마이스 환경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에 대응해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지역 문화·예술과 연계한 순천 문화예술회관과 영암 가야금산조 기념관, 지역 역사와 연계한 해남 명랑대첩 해전사 기념 전시관, 자연경관과 연계한 고흥 쉼터 리조트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회의의 기자재, 기초 편의 시

설 등 마이스 기반을 중점 확충하고, 중·소규모 회의의 유치 활동 지원 정책을 강화해 지역 마이스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는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지역 특색과 고유의 매력을 갖춘 차별화된 마이스 행사 장소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여수의 GS칼텍스 예술마루 등 20개소를 유니크메뉴로 선정·운영하고 있다.

유니크메뉴는 단순 회의 기능을 넘어 여가, 문화, 관광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를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마이스 수요 창출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석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최근 마이스산업은 미래 시장 개발 필요성과 중·소 도시에 대한 선호도 증가, 블레저(Bleisure) 트렌드 확산 등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며 "지역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마이스 육성을 통해 대표적 마이스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문화산업이 평생 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다채로운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	--------------	----------------------------

· 본점 · 여신사업부 · 문흥지점 · 운암지점 · 첨단지점
· 양산지점 · 동광주지점 · 동림지점 · 매곡지점 · 각화지점

광주문화산업 대표전화 1644-7990